

# 비파형동검의 한반도 유입과정에 대하여

-小黑石溝 출토 동검의 재해석과 마제석검의 기원을 중심으로-

강 인 욱 (부경대학교)

○ 토론 : 김권중(중부고고학연구소)



# 비파형동검의 한반도 유입과정에 대하여

-小黒石溝 출토 동검의 재해석과 마제석검의 기원을 중심으로

강인욱(부경대 사학과)

## 1. 서언

한국 지식묘사회의 대표적인 청동기인 비파형동검은 1980~90년대 초반까지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한 축을 이루었다(이영문 1993, 이청규 1993). 당시의 연구는 1980년대 촉발된 고조선 논쟁과 관련하여 북한이 비파형동검을 고조선의 한 축으로 보고(박진욱 외 1987), 중국에서도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데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에 전남과 남해안 일대의 고인돌과 구획묘에서 비파형동검이 다수 발견되면서 비파형동검의 문제는 고조선 뿐 아니라 한국 청동기시대전기-중기(송국리문화단계)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유물로 대두되었다.

한편 비파형동검은 2003년 야요이연대의 재편년을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일본의 학자 중에서 상향된 야요이연대를 지지하는 동북아시아 전공자 들(宮本一夫, 岡内三眞, 春城秀爾, 近藤喬一 등)은 小黒石溝 8501호묘의 동검을 기원전 9세기 이전으로 편년하고, 이를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시작연대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지엽적인 발굴 또는 토기의 유형설정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와 일본의 청동기시대 상한을 동북아시아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편년 체계와 문화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최성락 2006; 이홍중 2006; 庄田愼矢 2009).

한편, 비파형동검의 유입은 석검의 기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小黒石溝 8501호묘 출토의 동검을 한반도 석검의 기원으로 최근 한국 학계에서는 일본 학자들의 연구를 청동기에서 석검으로 확장해서 小黒石溝의 편년과 합주식 비파형동검이 한반도 석검의 조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박선영 2004; 배진성 2006). 사실 야요이문화와 관련한 小黒石溝 유적에 대한 재해석은 일본 야요이연대를 재편년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방증으로 지표채집된 평성리 석검을 제시했을 뿐, 자세한 유입경로나 한반도 석검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하가점상층문화에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과, 만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공자들의 연구성과가 한국 청동기시대 고고학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 학자들의 편년관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크게 두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현 상황에서 小黑石溝 8501호묘는 야요이연대의 재편년은 물론 한반도 석검과 비파형동검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sup>. 그래서 첫 번째로 小黑石溝 8501호묘의 동검 실연대와 비파형동검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한반도 석검과 비파형동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전 세계의 청동기문화에서 복합사회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남한)와 같이 주요한 개인무기(장식적이든 제의적이든)로 마제석검이 대량으로 사용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석검이 주요한 무기이면서도 청동검(비파형동검)과 같이 공반되는 예도 필자가 아는 한, 유라시아와 아시아를 통틀어서 전무하다. 필자는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형성과 유입과정을 풀어낼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이러한 석검과 비파형동검의 공존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전남과 경남의 해안가 지식묘에만 비파형동검이 집중되는 현상, 재사용이라고 하는 동검의 독특한 매장풍습, 그리고 석검이 주류를 이루며 동검은 극히 한정되게 사용되는 현상 등을 검토하여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성립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 II. 小黑石溝 8501호 유적의 편년

### 1. 문제제기

하가점상층문화<sup>2)</sup>는 기원전 13세기 경 내몽고 동남부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7~6세기경에 요서지방의 비파형동검문화가 유입되면서 소멸된다. 특히 내몽고 동남부 寧城縣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南山根 유형의 여러 유적에서는 중원예기, 초원계요소, 비파형동검문화 계통의 유물이 대형의 석곽묘에 부장되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이래 한반도의 청동기-석검의 기원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 일찌기 하가점상층문화가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기원과 관련되어있음이 주장된 것은 1970년대로, 송국리 석곽묘의 비파형동검을 南山根 101호 석곽묘에서 출

1)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요이문화의 재편년에 관한 여러 논의를 다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續稿로 미루어둔다.

2) 하가점상층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고가 한국과 중국에서 발표되었기 때문에 연구사, 주요 유적 등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토된 비파형동검과 비교해서 기원전 9세기로 추단한 바 있다(김영배·안승주, 1975). 이후 이견무(1992)가 하가점상층문화를 한반도 세형동검문화의 기원과 결부시킨 적도 있지만, 그가 상정한 하가점상층문화는 사실상 발해만유역의 십이대영자유형이라는 점에서 다소 맥락이 다르다. 이청규(2005) 강인옥(2005a,b) 등 대부분의 연구자는 하가점상층문화의 비파형동검문화요소는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 하가점상층문화로 일부 유입된 것이고, 하가점상층문화는 독자적인 문화를 영위했다고 보게 되었다. 이로서 하가점상층문화를 한반도 청동기문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 2003년부터 일본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일련의 야요이문화 전공자들이 야요이문화의 상한을 기원전 900년으로 올리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한반도 석검을 小黑石溝 8501호묘의 합주식 동검에서 찾는 견해는 近藤喬一(2000)의 견해를 좇아서 宮本一夫(2004), 岡内三眞(2004) 등이 小黑石溝 8501호 석곽묘 출토의 비파형인부를 가진 합주식 동검을 근거로 하여 비파형동검과 한반도 유병식마제석검이 기원전 10세기말~ 9세기초에 夏家店上層文化에서 기원했음을 주장한 것이다.

宮本一夫, 岡内三眞 등이 석검의 기원을 기원전 10세기말~9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주요 근거는 小黑石溝 8501호묘에서 공반된 서주말~춘추초기의 중원예기이다. AMS데이터의 신빙성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년명의 자료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중원 청동기를 반출하는 유적 중에서 한국·일본과 가장 근접한 하가점상층문화 유적이 확실한 절대연대를 제공하는 지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의창 평성리 출토품의 병단장식을 小黑石溝 출토 합주식 동검과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해서 한반도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석검으로 상정했다.

이러한 일본학자들의 편년체계는 곧바로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편년에 영향을 주어 한반도 비파형 동검의 연대를 기원전 9세기 대를 상한연대로 상대서열을 맞추는 편년의 기준이 되었다. 이들 견해를 정리하면, 小黑石溝 8501호묘 출토의 합주식 비파형동검은 비파형동검중 가장 이른 시기의 조형이며 그 연대는 공반한 중원예기를 근거할 때 기원전 10~9세기로 편년되며,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단병식 석검 중에 병단의 검과두식을 모방한 듯한 석검은 곧 小黑石溝 동검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유병식 석검은 이단병식 석검 중에는 의창 평성리가 가장 이른 것이며 그 상한연대는 小黑石溝 무덤의 연대로 볼 수 있다고 요약된다.

필자 역시 남한에서는 이단병식이 석검 중에서 대체로 이르며, 유병식 석검은 이단병식->유절식->일단병식으로 변천하는 대체적인 편년 안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과 견해를 같이한다. 문제는 석검의 조형과 상한연대의 기준으로 삼는 小黑石溝의 동검이 과연 남한(특히 경남지역)에 산견되는 석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小黑石溝 자체의 연대관은 옳은지에 대한 검토없이 기원전 9세기

를 확실한 절대연대 상한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또한 小黒石溝의 합주식동검이 비파형동검의 기원이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고 의창 평성리는 수백건의 동검중에 경남에 2~3점이 공반유물 없이 발견되었다는 점, 그리고 내몽고 동남부-요서지역과 한반도 경남지역의 지역적·문화적 차이를 전혀 논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타의 석검의 기원에 관한 제설과 마찬가지로 가설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한반도 석검의 기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는 小黒石溝 8501호묘와 출토된 합주식 비파형동검의 연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와 관련한 문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원지역에서 유입된 청동예기의 중원 내 사용연대를 곧바로 하가점상층문화의 절대연대와 결부시켜서 기년명 자료를 통한 편년체계가 가능한가?

두 번째로 하가점상층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南山根 101호무덤과 小黒石溝의 상대편년은 어떻게 되는가? 南山根 101호무덤에서는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南山根 101호무덤이 이르다면 小黒石溝 8501호묘의 합주식 비파형동검을 기원지로 상정하는 견해는 수정될 수 밖에 없다.

세 번째, 小黒石溝의 합주식 비파형동검 날을 한 동검이 비파형동검의 조형이 될 수 있는가?

## 2. 小黒石溝 8501호묘의 편년

### 1) 중원과의 관련을 통한 편년

일본학계는 기년명자료를 중시하면서 그를 편년의 주요한 근거로 삼는다. 기년명 자료를 통한 편년 방법은 확고한 절대연대관을 확립하고 기년명자료로 수립된 편년체계를 토기 등의 유물비교를 통하여 기년명자료가 출토되지 않는 주변지역까지 상대편년 체계들을 넓혀가는 문화사적 복원의 핵심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탄소연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20세기 초 주요 문명에 대한 편년법이었으며, 최근까지도 탄소연대보다는 형식학적인 서열에 따라 교차편년법이 주요한 방법을 이루는 일본과 한국고고학의 주요한 연구방법이다. 기년명자료는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크게 상한연대(terminus ante quem), 동시연대(terminus ad quem), 하한연대(terminus post quem)를 제시하는 자료로 나뉘어진다. 묘지명과 같이 폐기시점을 적시하는 기년명자료는 동시연대자료이며 사용기간이 명백한 유물(예컨대 특정한 왕조의 복식)은 하한연대의 자료에 해당한다. 반면에 동아시아 청동기의 주요한 기년명자료인 漢鏡과 中原禮器는 상한연대자료에 해당한다.

최근 小黒石溝 유적의 중원예기로 야요이 연대의 상한을 잡는 방법은 기년명

편년법은 사실상 기년명 자료로 삼는 것은 杉原莊介가 漢鏡자료를 중심으로 야이문화를 편년한 이래 일본학계가 계속 주지해온 연구의 전통이다. 필자는 한국이 일본과 같이 문명의 주변지역으로 탄소연대 이외에 절대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형식학에 근거해서 세밀한 상대편년과 인근 지역 출토의 기년명자료를 통한 비교편년의 유효성을 공감한다. 중원예기를 통한 편년법은 紀年銘이 나오는 청동기를 중심으로 특정 형식 청동기의 절대연대를 잡고, 형식학적인 변천을 고려해서 다른 청동기의 편년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중원예기는 실제 제사에 쓰이다가 일시에 매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납까지의 과정은 각 집단마다 매우 다르고 각 유물 간 수 세기의 주조연대가 차이가 난다. 중원에서 발견되는 청동예기의 경우에 제작과 매납사이의 시간차이가 2~3세기인 것도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서주시대 청동기의 편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서주 청동기는 각 부족의 사용에 따라 다양한 편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張懋容 2008). 郭末若 이후 중국 선진시대 고고학의 일반적인 방법인 명문이 있는 청동기와 비슷한 형식의 청동기를 모두 그와 비슷한 시기에 편년한 결과 편년의 불균형(특정한 연대에 청동기가 몰리거나 아예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가점상층문화와 같이 변방에서 발견되는 중원청동기는 각 연구자의 편년 틀에 2~3세기 정도의 편차를 두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3)</sup>.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를 보자. 小黑石溝 8501호 이외에도 南山根 101호, 夕子北山嘴(簋 1점), 小黑石溝 80년출토(鼎 1), 南山根 東區 58년 수습(戈 4점), 瓦房中 7301호(戈 1점) 小黑石溝 8501호, 9601호, 1990년 채집(簋, 鼎 등) 등에서 중원예기와 중원식 戈가 발견되었다(도면 1). 이 유물들은 모두 중원의 편년에 따르면 서주 말~춘추 초에 사용되는 것이다. 중원예기의 상한연대만을 근거로 하가점상층문화의 유적을 편년한다면 위의 유적들이 모두 같은 시기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요서지역에서는 춘추시대(기원전 8~6세기)에 해당하는 중원예기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춘추중기~전국말기에 중원예기만 집중되는 현상이 보인다(略左 南東溝, 凌源 三官甸子). 즉, 중원예기의 일반적인 편년을 대입할 경우 편년의 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요서지방과 같은 변방에서는 이들 중원예기의 획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납양상도 중원과 달랐기 때문에 중원지역 청동예기의 상한연대를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필자는 중원예기의 편년적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무리하게 연대를 낮추려는 입

3) 바로 烏金塘 유적이 그 좋은 예이다. 야요이문화의 편년을 기원전 300년으로 고정했던 1970년대까지의 동검 연구로 대표적인 秋山進午(1969)의 연구에서 烏金塘 출토의 戈를 여러 상대 편년치를 적용해서 기원전 7~6세기대로 보고, 다시 전세기간을 고려해서 기원전 5세기대로 편년하여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로 제시한 바 있다.

장은 아니다. 하지만, 하가점상층문화의 경우 중원이 아니라 변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그 연대를 추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연대는 小黒石溝 8501호묘의 許國産 청동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小黒石溝 8501호묘에서는 합주식 비과형동검과 함께 許國에서 만들어진 청동예기가 발견되었다. 선진시대 중원제후국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春秋左氏傳]에 따르면 許國은 河南省 許昌~南陽일대에 존재했으며(도면 2) 春秋 11년(B.C. 712년)에 처음 등장하고<sup>4)</sup> 기원전 504년에 鄭國에 의해 멸망했다. 許國은 남작(男爵)의 지위로 춘추 20국 중에서 뒤에서 2번에 기록될 정도로 작은 나라로, 주변의 큰 제후국들의 활동에 그 운명이 좌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小黒石溝 8501호묘의 실연대가 기원전 10세기말~9세기 대라면 許國의 청동기는 許國이 역사에 등장하기 약 200여년 전에 변방의 다른 문화에 매납되었다는 결과가 된다. 역사기록의 許國이 등장하는 시기를 감안하면 小黒石溝 8501호묘의 상한은 기원전 8세기말~7세기 초반이 합리적일 것 같다.

한편 기록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소국이었던 許國의 청동기가 먼 변방인 하가점상층문화의 무덤에 매납되었다는 점을 편년과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이는 먼저 하가점상층문화가 여러 先秦史書의 기록과 비교하면 山戎(=北戎)<sup>5)</sup>에 비정됨을 의미한다. 기원전 7세기 초~중반에 齊桓公은 산융을 정벌함으로써 중원의 패자로 등장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제환공의 북벌기사가 주목된다<sup>6)</sup>. 역사지리적으로 볼 때에 산융은 당시 중원의 장성이북지역, 특히 동북방 지역으로 생각되어서 하가점상층문화의 분포지와 부합한다. 또한 고고학적 문화로 볼 때에 하가점상층문화로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기원전 9~7세기 대에 중국 북방에서 가장 발흥한 이방민족 세력으로는 하가점상층문화밖에 없으며, 실제로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초원계 청동기와 중원예기는 그들의 군사적 팽창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기원전 1천년기 전반에 중국 북방 지역에서 분포한 毛慶溝(오르도스 고원지역), 玉皇廟(燕山山脈), 寧夏지역의 楊郎문화 등은 하가점상층문화의 변성기인 기원전 9~7세기대로 편년되는 유적은 거의 없다. 게다가 중국과의 관련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원예기의 경우도 하가점상층문화가 유일하다. 중국 북방지역에서 하가점상층문화와 동남쪽으로 연결한 하북지방의 경우 기원전 11~10세기대에 白浮로 대표되는 주민집단의 유

4) 史記夏本紀第二 正義括地志云：「許故城在許州許昌縣南三十里，本漢許縣，故許國也」

5) 山戎, 白戎, 戎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는데, 대체로 산융이라고 표현한 예가 제일 많다.

6) 선진기록의 신뢰성이라는 것에 사료비판적 관점에서 많은 의심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필자는 고고학적 사실을 역사기록에 무조건적으로 비교하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산융의 경우 많은 사서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기록의 내용 자체를 부정할 근거는 그리 많지 않다. 하가점상층문화의 중원예기가 꼭 제환공의 북벌을 증명하지는 않더라도 기원전 8~7세기대 중원과 산융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보여준다는 분 명하다.

적에서 중원계의 무기와 청동예기가 유입된 바 있다. 이들은 召公奭이 연을 다스리는 제후로 봉해지면서 이 일대의 중원세력과 대립하는 과정에 유입된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시기인 玉皇廟문화에서는 중원예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은 오르도스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오르도스 고원지역의 毛慶溝를 비롯한 여러 무덤유적에서 중원계통 청동기로는 戈를 제외하고 禮器는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寧夏의 楊郎문화는 중원예기가 전혀 공반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 장성 이북의 여러 유목문화에서는 하가점상층문화와 비견할 정도의 대형 무덤이 부재하며, 南山根, 小黑石溝 무덤과 같이 중원예기가 대량으로 매납되는 경우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즉, 지리 및 시기적으로 산융은 하가점상층문화와 부합될 뿐 아니라, 당시에 중원 북방에서 중원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키웠던 집단은 산융이 거의 유일하다는 점에서 南山根과 小黑石溝를 남긴 집단은 산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가점상층문화(南山根유형)=산융]이라는 필자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고 小黑石溝 8501호묘를 보면, 이 무덤은 제환공대를 전후한 중원과 산융의 갈등과정에서 남겨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상기한 小黑石溝 출토 許國 청동기의 명문인 [許季姜作尊簋其萬年子子孫孫永永寶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도면 1-13). 그 명문의 뜻은 ‘許國의 사람 강이 이 궤를 만들었으니 자자손손 소중히 쓸 것’이라고 해석된다. 許는 나라(지역), 季는 작위이며 姜은 許國의 왕족의 성이다. 즉, 許季姜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허나라 왕족의 이름이며 명문에서 보듯이 許國 왕실이 쓰던 청동예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남성 소국 왕실의 청동기가 증여나 교류의 산물로 하가점상층문화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군사적인 약탈 등에 의해서 흘러들어갔다고 보는 편이 옳다.

산융과 중원 제후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은 역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대표적인 선진사서인 [춘추좌씨전]를 보면 산융은 제환공의 북벌기사를 중심으로 기원전 8세기 후반 ~ 7세기 중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 기사들에서 산융은 산둥반도에 위치한 제나라 뿐 아니라 다양한 중원의 제후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벌였다. 예컨대 기원전 714년의 기록에는 북융이 정나라를 침략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sup>7)</sup>. 또 기원전 713년에 北戎(=山戎)이 제나라를 침략하자 鄭이 그를 도와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다<sup>8)</sup>. 山戎과 주로 대적하는 鄭은 許國의 바로 위에 연결한 나라였다(도면 2참조). 즉, 산융이 鄭國을 비롯한 중원의 제후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許國과의 충돌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춘추좌씨전 650년조에는 제와 허가 연합해서 북융을 벌했다는 기록이 있다.<sup>9)</sup> 이 기사는 곧 당시 산융의 중원에 대한 공격이 비단 정뿐 아니라 주변의

7) 춘추좌씨전 魯桓公條(기원전 713년) [北戎侵鄭...患戎師曰 彼徒我車... 鄭人大敗戎師]

8) 춘추좌씨전 魯桓公條(기원전 713년) [北戎伐齊 齊侯使乞師于鄭 鄭大夫忽帥師救齊 十月大敗戎師]

許國에도 미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이와같이 小黒石溝 8501호묘에 남겨진 청동기는 8세기 초반~7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하가점상층문화(산융)과 중원제후국간의 갈등상황에서 하가점상층문화로 유입된 것이다.

## 2) 南山根 유적과의 상대편년

다음으로 小黒石溝와 南山根의 상대편년을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강인욱 2005a, 2005b) 여기에서는 그 대강을 살펴보자.

필자는 하가점상층문화를 유라시아 청동기과의 교차편년으로 4단계로 나눈 바가 있다(강인욱, 2005a). 당시에는 소흑석구 8501호묘를 가장 늦은 단계로 편년했지만, 최근에 발간된 小黒石溝 종합보고서(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外 2009)에서 小黒石溝 8501호묘 보다도 늦은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무덤 군들이 확인된바, 그를 제 5기로 상정할 수 있다. 즉, 南山根은 1~3기로, 小黒石溝는 4~5기로 편년된다. 구체적으로 그 문화상을 보면 단인장으로 작은 청동 장식(鳥形文)이나 連珠形 장식이 주로 출토되는 1기, 비교적 대형석곽묘가 등장하며 마구를 포함한 청동기 유물이 증가하나 동검이나 중원계의 유물은 출토하지 않는 2기(南山根 101호묘), 중원예기가 출현하고 비파형동검을 비롯해서 카라숙 후기~초기 스키토-시베리아유형의 유물 등 주변지역과의 교류가 심해지고 사회구조가 복잡화하는 3기(南山根 102호묘)와 후기 카라숙문화요소가 거의 사라지고 스키토-시베리아유형의 요소가 증가하는 4기(小黒石溝 8501호묘) 단계, 玉皇廟문화 계통의 雙圓形식 동검이 부장되는 5기(小黒石溝 85년 1구역 3호묘) 등으로 세분된다(도면 3). 즉, 하가점상층문화의 유라시아계통 청동기로 상대편년하면 小黒石溝 8501호묘가 南山根보다 한 단계 늦음을 의미한다. 이는 2009년에 발간된 小黒石溝에 대한 종합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小黒石溝 유적의 하가점상층문화는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지는 바, 그 중에 무덤은 늦은 시기의 것이다. 小黒石溝 보고서의 보고자는 두 문화를 각각 서주초기와 춘추 초기(기원전 8세기 초엽)로 보아서 필자의 견해와 부합한다. 또한 小黒石溝의 다른 하가점상층문화 무덤에서 발견된 초원계 청동기에서도 기원전 9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카라숙식 청동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형동부, 마두형 송풍관 등 비파형동검 중기 단계와 玉皇廟 유적에서 많이 보이는 유물들과 유사하(강인욱 2009). 즉, 小黒石溝 8501호묘는 南山根 101호묘보다 한단계 늦은 단계이며, 두 유적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점을 감안할 때에 당시 최상위급의

9) 춘추좌씨전 춘추기년도, 辛未年條(B.C. 650) 齊許伐北戎

세력이 小黒石溝 쪽으로 남하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하가점상층문화에서 南山根 101호묘와 小黒石溝 8501호묘의 상대편년을 볼 때 南山根이 한 단계 이르다. 南山根 101호묘에서는 별주식 비파형동검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小黒石溝 8501호묘를 비파형동검의 가장 이른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하가점상층문화는 산용에 비정되며, 그들은 8세기 후반부터 중원지역과 다양한 군사적인 접촉을 했다. 특히 小黒石溝 8501호묘의 許國산 청동기는 기원전 7세기 전반대의 중원과의 군사적인 접촉에 의한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 3. 小黒石溝 출토 동검의 검토

小黒石溝의 합주식 동검에 대해서는 한반도 마제석검의 조형(近藤喬一)과 비파형동검의 조형이라는 주장(宮本一夫)로 주목받고 있다. 그 근거로는 검신, 검병, 검과두가 모두 출현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비파형동검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별주식 동검이다. 현재 완벽한 동검의 기원을 보여주는 자료는 출토된 바 없지만, 분명한 점은 小黒石溝 8501호묘 출토 동검은 비파형동검문화권 바깥의 합주식 동검을 만드는 전통에서 만들어진 異形일 따름이지 비파형동검의 기원이라고 볼 근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하 각 부분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小黒石溝 8501호묘 출토 T자형 검병을 보자. 요서지방 초기 비파형동검 단계에서는 목병을 썼을 뿐 청동제 검병은 사용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小黒石溝 8501호묘가 비파형동검의 기원이라면 南山根 101호, 十二臺營子, 和尚溝, 烏金塘 등 요서지역 전기 비파형동검에서 검병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小黒石溝를 제외하면 요서지역에서 T자형 검병이 발견된 유적은 何家溝, 南洞溝 등으로 그 연대는 공반한 유물들로 춘추말~전국초기(기원전 6~5세기)로 편년된다. 小黒石溝 8501호묘를 비파형동검의 기원으로 간주한다면 기원전 9~8세기에 등장한 T자형검병은 8~7세기에는 사라지고 다시 6세기 후엽이 되어서야 등장하는 게 된다.

두 번째로 小黒石溝 출토 동검이 合鑄式이라는 점이다. 기원전 1천년기 중국, 시베리아 등의 동검에서 비파형동검과 같이 검과두식을 장착한 예는 전혀 없다. 검과두는 타격 시에 살상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만 알려져있다. 유독 검과두가 비파형동검에 부착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검신의 길이가 길며 병부가 속이 비어서 손잡이 부분의 무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검을 주 무기로 사용하면서 근거리 전시에 적을 타격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검과두식은 별주식인 비파형동검의 사

용을 위해서 고안된 검의 부속이라는 점이다. 초원지역의 합주식 동검이나 중원의 東周式검(桃氏劍), 白越지역의 동검 등 어떠한 합주식 동검에도 이러한 검과 두식을 장착하거나 별도의 검단 장식을 한 예가 없다. 소흑석구 8501호묘를 비파형동검의 조형으로 인정한다면, 합주식 동검에서 예외적으로 검과두식을 부착하게 되었고, 검과두식을 부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검과 검병을 분리하는 별주식 비파형동검이 등장했다고 하는 어색한 형식학적 서열이 상정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小黒石溝 동검의 특징으로 검신의 형태를 들 수 있다. 필자를 비롯한 여러 학자가 검신의 폭을 주요한 동검의 편년적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요서지방 동검의 경우 실제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검날이 심하게 마모가 되어서 다소 동검이 세장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신의 폭이 아주 민감하게 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인 형식변천의 흐름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小黒石溝 동검의 경우 검신도 매우 세장하며 들기부도 미약하게 발달되어있다. 小黒石溝의 또 다른 별주식 비파형동검의 경우(도면 4-14) 검의 전반부는 아주 세장하게 되어있어서 老爺廟式과 거의 유사한 정도이며, 검신의 후반부도 매우 세장하다. 게다가 필자가 실견해서 보아도 동검을 사용하면서 마연한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사용을 자주해서 닳아 없어진 것인지 의심된다. 합주식 비파형동검의 또 다른 예인 내몽고 黃花甸子출토의 동검(邵國田 1993)(도면 4-15)은 아예 검날이 직인화되었다. 이와 같이 합주식 비파형동검 3점은 모두 세장한 형태로 기존에 확립된 비파형동검의 형식적 변천에 대한 틀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로 小黒石溝 8501호묘의 검과두식을 보자. 이 검과두식은 타원형으로 다른 비파형동검에 부착된 여러 검과두식과도 비슷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비파형동검의 검과두식에서 가장 이른 것은 후기 카라숙식 동검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 王八蓋子 출토 로 후기 카라숙식 동검에 부착된 乳狀돌기가 붙어있는 형태이다. 王八蓋子 출토의 검과두식은 직인식 카라숙식 동검은 비파형동검 이전 단계에 존재했었다는 점에서 가장 이른 단계로 볼 수 있다. 내몽고 黃花甸子출토 동검에 합주된 검과두식은 비파형동검의 중기 단계에 많이 유행하는 山字形이어서 합주식 동검의 연대를 추정하는 참조가 된다. 또한, 小黒石溝 8501호묘와 같은 타원형의 검과두식은 강상묘와 누상묘 등에서도 발견되어서, 소흑석구 출토의 검과두식을 가장 이른 형태의 검과두 형태로 보기 어렵다.

이상 동검 자체의 검토를 해본 결과 小黒石溝 8501호묘 출토 동검은 동검의 제작기법, 검과두식 등 전반적인 특징으로 볼 때 비파형동검 전기에서 중기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도면 6). 그리고 南山根 101호묘 및 58년도 출토의 비파형동검을 감안하면 도면 5)와 같은 동검의 변천이 상정된다. 즉, 南山根 101호묘 단계에서 비파형동검이 하가점상층문화로 유입되었고, 그 영향으로 하가점상층문화의 합주식동검과 공병식동검의 날이 곡인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후 小黑石溝 단계에서는 초원식 동검과 비파형동검의 특징이 결합된 동검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도면 5-5).

#### IV. 한반도 청동기사회의 석검과 비파형동검

##### 1) 동검모방설의 검토

기원전 1천년기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전역의 고대 사회 형성과정에서 볼 때에 한반도의 석검은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고인돌과 복합사회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사회에서 개인용 무기가 청동기가 아니라 석검이 주류를 이루는 예는 한반도, 연해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한반도의 ‘석검현상’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청동검을 모방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일제시대에 처음 제기된 세형동검 모방설에서 시작해서 오르도스 동검설, 東周式 동검설 등을 거쳐서 최근에는 小黑石溝 8501호묘 출토의 비파형동검을 평성리 출토 석검과 연결한 비파형동검 기원설이 등장한 바 있다. 하지만 상기한 바, 小黑石溝 8501호묘는 비파형동검의 기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에 하가점 상층문화와 한반도가 적극적인 문화교류(상호작용권)이 있었다는 증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에 또한 한반도 출토의 마제석검은 동검모방설의 문제는 유병식 석검에 비파형동검을 모방한 결정적인 속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비파형동검 특유의 곡인, 등날, 척돌, T자형 검병 등은 석검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청동기를 모방하는 석기라면 청동기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잘 모방해야 한다. 시야를 약간 넓혀서 한반도와 함께 석검이 널리 유행한 연해주를 보면 동검을 모방하는 석검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해주의 석검은 등날, 병단장식, 등날 등 마제석검에 표현하기 아주 어려운 동검의 속성들을 정교하게 모방한 것이 많다. 즉, 한반도 유병식 석검이 비파형동검을 모방하려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인 비파형의 검날과 단면 원통형의 등날 등을 표현해야 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전혀 없다. 즉, 한반도 마제석검은 비파형동검을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석검을 만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 북부와 요동지역에서는 비파형동검 이전인 초기 청동기시대부터 雙砵子 III기문화, 高臺山, 두만강 유역의 興城유형 및 유정동 유형 등 만주의 여러 지

10) 그러한 상황은 비파형동검뿐 아니라 東周式검, 오르도스식검과의 비교와도 마찬가지다. 柳田康雄(2004)은 마제석검의 절대적 병부를 東周式검의 고리형 검병에서 찾은 바 있다. 東周式검은 유병식(I식), 절대가 있는 유병식(II식), 절대가 없는 유병식(III식) 등으로 세분된다. 東周式동검에서 II식과 III식은 지역이나 시간적인 차이가 전혀 없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東周式검에 절대가 있는 것은 병부가 작은 원형으로 그냥 손에 쥐기 어려워서 그 위에 노끈을 감기 위해서 형성된 절대이다. 즉, 장식적인 면이라기보다 철저히 기능적인 형성된 것이다. 반면에 한반도 유절식 석검은 단면이 세장한 타원형으로 사용법 자체가 달랐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東周式동검이 한반도에 유입된 것은 비교적 늦은 세형동검문화 단계로 석검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역에서 유경식 석검이나 석모가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의 자료 수준에서 한반도 석검의 조형내지는 기원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동검의 조형을 찾고 편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반도 석검의 기원은 초기 청동기시대 이래로 동아시아 일대에 널리 퍼져있는 유경식 석검(또는 석모)의 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에 기원전 1천년기에 동아시아 일대에서 복합사회가 빠르게 형성되어 개인용 무기인 동검이 널리 쓰이는 과정의 하나로서 단독의 무덤(석관묘 또는 고인돌)에 매장되는 현상으로 유병식 석검이 널리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환언하면, 비파형동검이 한반도의 청동기문화에 개인용 무기를 가지게 하는 본보기로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주민이 적극적으로 동검을 모방했다는 증거는 없다.

## 2) 남한 재사용 비파형동검과 석검

한반도 출토의 비파형동검에 대해서는 다원론적 접근이 다수를 이루지만 (近藤 喬一 2000; 장인욱 2005; 쇼다 신야 2009) 최근에 일원론적 접근(미야자토 오사무 2010)<sup>11)</sup>이 제시되었다. 필자는 구고(2005b)에서 한반도 비파형동검 자체의 유입과정을 검토해서 한반도 비파형동검을 선암리식, 서포동식, 예전동식 등의 3가지로 나누고 각각 다른 경로로 한반도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각각 요령지방에서 장인의 유입으로 전형적인 비파형동검이 만들어진 예전동식, 요서지방 십이대영자문화의 동검이 요동을 거쳐서 유입된 서포동식, 그리고 토착적인 석검문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선암리식 동검으로 다계통 기원설을 제안한 바 있다. 구고(장인욱 2005b)에서는 유라시아 청동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예전동식의 성립에 장인집단의 이동을 상정했다. 본 발표에서는 남한에 유입된 비파형동검의 한국화를 보여주는 재사용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한반도 남부 재사용 동검의 매납방식은 석검의 매납과 거의 유사하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재사용 동검을 분류한다면 1) 동검을 2~3 등분하여서 일부 또는 전체를 묻은 경우(여수 오림동, 고흥 운대리 1926년 조사, 오림동 8호, 적량동 2호, 승주 내우 13, 21, 22호), 2) 동검을 짧게 만들어서 날을 세장하게 가는 경우(부여 암수리, 여수 평려동 나-2호, 사천 이금동 D-12호, 덕치리 1호, 승주 내우 3,8호, 서천 오석리, 운대 12호), 3) 석검을 모방한 경우(마산

11) 최근에 한반도 출토 동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곡동식, 서포동식, 송국리식, 송죽리식, 용흥동식, 고산리식 등으로 세분한 미야자토(2010)은 금곡동식(필자의 예전동식)-송죽리식(필자의 선암리식)-서포동식 등으로 형식학적 변화를 거친 일원론적 계통으로 보았다. 미야자토의 형식분류는 고산리식이 추가된 것 이외에 다른 식을 세분한 것 이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금곡동식에서 송죽리식의 형식적 변화상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동리) 4) 동검의 날을 깨서 묻은 경우(여수 화장동) 5) 동검을 갈아서 다른 청동기를 만든 경우(부여 송국리, 덕치리 신기 15호) 등이다. 이들 중 5)번을 제외한 네 가지 방법 등을 모두 석검의 매장풍습에서 흔히 보인다. 반면에 요령·길림 등 다른 비파형동검문화권에서 이러한 방식의 동검 매장은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로 남한의 비파형동검은 T자형 검병이나 검파두식이 공반되지 않으며, 경부에 흠이 파여있다. 즉, 요령지역의 검 장착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한반도 서북한 지역 유경식 석검의 검병 장착방식을 채택했음을 의미한다(이영문 1991:1998). 실제로 서북한과 송국리 출토의 유경식 석검에서 흠이 파인 것은 많이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남한 출토의 재사용 동검 중에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석검을 모방한 동검의 예가 있다. 마산 진동리의 동검은 봉부 쪽은 가파르게 날이 형성되었다가 검신의 중간부에서부터 완만하게 날이 형성된다. 이러한 날의 특징은 고인돌에 부장되는 유병식석검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네 번째로 재사용 동검은 실제 동검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에는 재사용동검은 귀한 청동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는 견해가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고대에 청동기를 사용하는 예를 감안하면 무리가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청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검을 부러뜨려서 재사용하는 예는 없다. 연해주, 삼강평원, 송눈평원 북부와 같이 청동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청동기 자체를 수입하거나 장신구나 소형장식을 만들어 쓸 뿐이다<sup>12)</sup>. 비파형동검이나 석검은 무기보다는 상위계급의 寶器로 위신제화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신분의 상징으로 청동검을 사용했고, 그것이 여러 이유로 훼손되거나 부러졌다면 다시 녹여서 장신구 등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비파형동검이 부장된 무덤은 석검의 부장과 비교해서 차별되는 우월성을 찾기 어렵다(윤호필 2000). 또한 비파형동검 출토 양상의 분석으로 남한 사회에서 ‘國’의 형성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武末純一 2004). 하지만 비파형동검에서 보이는 무덤간의 정형성은 석검부장과 석검이 부장되지 않은 무덤에서도 똑같이 보인다는 점에서 석검이나 동검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남한의 비파형동검은 일종의 석검을 대신하는 대용품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한반도에서 석검화된 비파형동검이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은 비래동 유적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한반도, 특히 남한의 비파형동검 유입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비래

12) 청동기의 사용이 제한적인 연해주, 송눈평원 등에서는 청동기가 널리 쓰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연해주의 경우 다시 녹여서 동포를 만들거나 하는 현상이 있다.

동 출토 동검이다. 비래동 동검은 거의 완벽한 공반유물과 유구에서 출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비파형동검의 형식분류에 대한 통념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 비래동 동검 자체의 형태는 등날을 가는 방법이나 전반적인 형태에서 세형동검과 매우 흡사하다. 기존의 형식분류안을 조정한다고 해도 형식학적인 관점에서 논한다면 비래동 출토 동검과 한반도 청동기시대 편년의 주축을 이루는 토기편년과의 불일치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즉, 비래동 동검은 기존의 동검연구에서 주가 되어온 동검 자체의 형식학적인 논의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으며, 그를 남한의 석검문화에 편입되어 석검의 형태로 변용되는 비파형동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존재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비래동 유적의 편년에 대해서는 공반된 토기와 석촉으로 볼 때 절대연대<sup>13)</sup>와 상대편년의 단계에 대한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필자는 기원전 8세기 후반(필자 편년)이나 기원전 7세기 초반보다 늦다고 보기 힘들다고 본다<sup>14)</sup>.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재사용을 반복적인 사용의 결과라고 본다면 비래동 동검이 실제 만들어진 시기는 요령지역의 비파형동검 제작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래동 동검은 한반도에 비파형동검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석검화된 예라고 볼 수 있는 증거다<sup>15)</sup>.

## 2) 한반도 청동기시대에서 비파형동검의 위치

한반도에서 동검의 석검화 현상은 한반도 청동기사회의 사회성격 및 의례와 매장풍습에서 기인한 것이다. 먼저 개인무기와 제례에 관련된 무기들을 통제하는 집단이 석검을 선호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절병식 석검에 대한 연구(장용준·히라고리 2009)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석검과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전기후반부터 전국적으로 비슷한 매장의례와 관습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청동기시대 중기에 수전농경과 고인

13) 탄소연대는 다소 이르게 나왔다.

14) 최근 미야자토(2010)의 연구는 한반도 비파형동검의 상한연대가 기원전 6세기 정도이며, 비파형동검문화는 분기가 없이 하나의 시기였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연대관은 다소 늦은 감도 있다. 이러한 편년이 인정된다면 비래동 동검의 경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15) 한편, 비래동 출토의 동검의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는 한반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동검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비래동 동검의 원래 형식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동식(강인욱 2005)과 선암리식(庄田愼矢 2005)의 견해로 대비된다. 비래동 출토 동검의 경부를 자세히 관찰하면 경부 끝 만입한 부분의 약간 위쪽 단면은 약간 불룩하다. 동검의 척돌부분을 부러뜨리고 척돌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마연을 한 흔적이다. 원 보고서(성정용 1997)에서 그 부분은 다소 미미하게 처리되었지만, 그를 새로 실측한 庄田愼矢의 논문(2005)에서 동검의 단면을 보면 경부 끝 부분의 척돌이 약간 비대칭으로 형성된 것이 비교적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비래동 동검의 원형을 선암리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庄田愼矢 2005), 실제로 선암리식 동검은 별다른 척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래동 동검은 비파형동검인 예전동식 동검의 상반부를 부러뜨려서 재마연한 것으로 보인다.

들이라고 하는 복합사회의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생계경제를 영위하는 한반도 남부의 각 지역은 상호작용권이 이루어지며 석검문화권이 형성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남한 전역이 비슷한 유병식석검을 사용할 정도로 지배층과 제의에 사용되는 석검의 제작과 유통을 통제할 수 있었던 사회조직이 있었다고 상정할 수 있다. 다소 사회발전의 정도는 다르지만 중원에서 하상주시대에 청동예기의 공급을 통제하고 하사와 증여의 방식으로 타지역을 통제했던 것과는 비교된다.

흔히들 철기가 나오면 청동기를 대체하고, 청동기가 발명되며 석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로운 소재가 기존의 주요한 소재를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소재의 인지가 아니라 사회적인 변동과 문화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새로 들어온 재질이 기존 사회의 물질문화를 바꾸는 정도가 아닐 경우, 기존의 전통적인 도구체계에 동화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다. 예컨대, 17~18세기에 러시아의 코사크인들이 북극권의 축치인들과 모피와의 교역을 통해 철기를 전해주었지만, 기존의 석기날에 철기를 대신 쓰거나 일부 석기만을 대체했을 뿐 기본적인 문화는 바꾸지 못했다. 또한 남부 시베리아의 타가르문화(기원전 8~3세기)나 파지릭문화는 우랄산맥 서부의 스키토-시베리아유형의 문화와 달리 철기를 거의 도입하지 않은 채 오히려 교류를 통해서 흑해연안 스키타이문화의 철검을 청동검으로 만드는 현상 등도 좋은 참고가 된다(도면 7). 즉, 새로운 금속기의 도입은 급박한 전쟁이나 정복이 아닌 다음에는 그를 도입하는 사회의 조건에 더 좌우된다.

필자는 유라시아 청동기시대의 전과과정에서 연구한 바를 참고해서 남한에도 비파형동검을 제작한 소수의 장인집단이 이동해서 청동기를 소수에게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한 바 있다(강인욱 2005b). 교류에 따른 청동기의 인지, 그리고 청동기의 수요에 따른 청동기 장인의 등장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청동기문화를 주도하던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전반적인 특징이다. 유라시아 초원지대는 지역 간의 이동과 교류에 근거한 유목사회와 그를 둘러싼 정착사회의 교류가 이러한 근간이 되었다. 이에 반해서 한반도 청동기시대 중기의 사회는 원거리와의 교류와 정복이 아니라 집약적인 수전농경에 기반하여 지역거점을 지키는 사회였다. 한국의 고인돌사회와 비슷한 시기에 요서지방 하가점상층문화와 북방 초원지역에서는 거대한 고분에 대량의 부장품이 부장되는 것과 달리 대형의 기념물에 빈약한 부장품이라는 한반도 청동기사회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농경사회의 특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청동기는 석검과 달리 원료의 획득과 제작에 많은 노하우와 교류<sup>16)</sup>가 전제되어

16) 청동기의 원료에서 동은 비교적 획득하기가 용이하지만, 주석의 공급은 가장 큰 문제였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에 남한에서 고대에 채굴할 수 있었던 주석산지는 없었다. 한반도와 비슷하게 석검문화권을 이룬 연해주의 경우에도 현재는 달네레첸스크를 중심으로 주석광산이 있지만, 고대에는 주석의 자체공급이 불가능해

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산력을 제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사회의 형성과정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한반도에서 비파형동검이 석검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한반도 사회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한 현상이었다.

## VII. 결론

그간 한반도 청동기문화에서 비파형동검은 청동기라는 소재에 때문에 다소 과대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발굴에도 불구하고 석검과 비교했을 때 비파형동검을 소유했던 피장자의 무덤이 월등하게 우월한 증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주요한 근거로 보았다. 즉, 한반도에서 대형의 비파형동검(예전동)이 매납되고 동검들이 한반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고인돌 사회에서 석검이 개인무기로 부장되는 상황들로 볼 때에 청동기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굳이 쓰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비파형동검이 석검의 강한 전통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에 동화되는 이유를 교류보다는 지역거점에 근거한 정착농경에 기반을 둔 한반도 청동기시대 사회의 특징에서 찾았다. 구체적으로 小黒石溝 8501호묘의 실제 연대와 비파형동검의 기원, 그리고 한반도 석검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小黒石溝 8501호묘의 공반유물과 동검 자체의 분석을 통하여 小黒石溝 8501호묘의 중원예기가 확실한 절대연대를 부여하지 않으며, 동검도 일종의 이형임을 밝혔다. 따라서 비파형동검 및 마제석검의 조형을 小黒石溝 무덤에서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신에 비래동 출토를 중심으로 한반도 출토 재사용 비파형동검을 통하여 한반도 석검문화권에 유입된 비파형동검의 재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반도의 비파형동검은 한반도의 석검전통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그에 편입되는 양상으로 유입되었고, 그는 결과적으로 남한의 비파형동검은 요령지방의 비파형동검과 다르게 사용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 석검의 조형을 막연하게 비파형동검에서 찾기 보다는 기원전 1천년기 개인무기인 동검을 위주로 재편되는 동아시아 청동기문화라는 커다란 문화적 흐름에서 한반도 비파형동검문화의 발전과정을 조망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청동기시대는 청동기에서 취락과 초기 청동기시대의 편년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비파형동검을 중심으로 하는 청동기 자체의 연구는 다소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아마도 대형발굴이 급증하는 데에 따른 취락과 토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비파형동검이라는 고고학적 현상은 동북아시아 전역의 기원전 1천년 기에 전개되는 다양한 동검문화에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

서 자바이칼 지역에서 교역을 통해 수입했었다.

쉽사리 접근할 수 없다는 데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1천년기의 동아시아는 동검으로 대표되는 개인무기와 복합사회의 형성이라는 비슷한 사회의 변화를 거친다. 하지만 한반도는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는 석검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이루었다. 그간의 연구는 석검의 조형을 특정한 동검에서 찾거나 비파형동검의 유입을 지나치게 요령지역의 문화가 유입되는 현상에 강조한 나머지 한반도 석검문화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에는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야요이연대의 재편년과 함께 제시된 小黑石溝를 중심으로 하는 하가점상층문화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동북아시아 청동기시대라고 하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재수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청동기시대 연구에서도 남한 내의 편년체계 수립과 생계경제와 같은 미시적인 연구와 함께 거시적인 연구의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거시적인 연구는 청동기와 같이 중국 동북지방과 비교할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한국어]

- 강인욱, 2005a, 「夏家店上層文化的 형성과 유라시아의 초원문화」『서울경기고고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경기고고학회.
- 강인욱, 2005b, 「韓半島 出土 初期 琵琶形銅劍의 登場과 成立過程 대하여」 『한국상고사학보』 49집.
- 姜仁旭, 2007, 「中國 오르도스(顎爾多斯) 青銅器의 概念과 初期研究에 대한 檢討- 骨董學에서 新中國 成立以前까지」, 『中國史研究』56, 중국사학회.
- 金永培·安承周, 1975, 「夫餘 松菊里 遼寧式銅劍出土 石棺墓」, 『百濟文化』 7·8.
- 나카무라 다이스케(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 68, 韓國考古學會.
- 니콜라드 디코스모, 이재정 역, 2005 『오랑캐의 탄생』 황금가지.
- 武末純一 2002 「遼寧式銅劍墓와 國의 形成 : 積良洞遺蹟과 松菊里遺蹟을 中心으로」 『청계사학』 16·17호.
- 미야자토 오사무(宮里修) 2010 『한반도 청동기의 기원과 전개』 한빛문화재연구원총서 4, 사회평론.
- 박선영, 2004 『남한 출토 유병석식검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裴眞晨 2007, 『無文土器文化的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成正鏞 1997, 「大田 新垆洞·比來洞 青銅器時代遺蹟」,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제2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문.
- 손준호, 2006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2.
- 복기대, 1998, 『요서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 신의주 역사 박물관, 1967, 「1966년도 신암리유적발굴간략보고」 『고고민속』2집.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 윤희필 2000 『동검묘와 그 피장자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李相吉,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李榮文, 1991, 「韓半島 出土 琵琶形銅劍 型式分類 試論」, 『博物館紀要』 7, 檀國大學校
- 李榮文, 1998, 「한국 비파형동검 문화에 대한 고찰-비파형동검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48, 韓國考古學會.
- 이청규, 2005, 「青銅器를 통해 본 古朝鮮과 주변사회」, 『북방사논총』 6호, p.15.
- 이흥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 토기의 실연대」 『한국고고학보』 60집.
- 임 운, 1997, 「중국 동북지역과 북아시아 초원지대의 초기 문화교류에 관한 시론」 『박물관기요』제 12집.
- 쇼다신야(庄田愼矢)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쇼다신야(庄田愼矢), 2005, 「湖西地域 出土 琵琶形銅劍과 彌生時代 開始年代」, 『湖西考古學』 제 12집, 호서고고학회.
- 張龍俊·平郡達哉, 2009 「유절병식 석검으로 본 무문토기시대 매장례의 공유」 『한국고고

학보』 제 72집.

정석배 2004, 『북방 유라시아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정태현 역주, 2001 『春秋左氏傳』 고전국역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1집.

최몽룡·이현중·강인옥, 2003 『시베리아의 선사고고학』 주류성.

최성락 2006 「일본 야요이시대 연대 문제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58집.

[중국어]

賈鴻恩,1984 「翁牛特旗大泡子青銅短劍墓」 『文物』 84-2.

建平县文化馆·朝阳地区博物馆, 1983, 「辽寧建平县的青铜时代墓葬及相関遺物」 『考古』 1983-8

靳楓毅, 1982~83,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82-4, 83-1.

靳楓毅, 1983 「朝陽地區發現的劍柄端加重器及其相関遺物」, 『考古』 2.

靳楓毅, 1985,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関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靳楓毅, 1985,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関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文物出版社.

靳楓毅, 1988, 「大凌河流域出土的青銅時代遺物」, 『文物』 11.

靳楓毅, 1985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関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文物出版社.

靳楓毅, 1985, 「寧城縣新發現的夏家店上層文化墓葬及其相関遺物的研究」, 『文物資料叢刊』 9,

靳楓毅, 1987 「夏家店上層文化及其族屬問題」 『考古學報』 2期.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 寧城縣遼中京博物館 編著, 2009 [小黑石溝 - 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內蒙古自治區博物館 外 2004 『成吉思汗-中國古代文化草原遊牧文化』, 北京出版社.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2.

遼寧省昭烏達盟文物工作站,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1973, 「寧城縣南山根的石槨墓」 『考古學報』 73-2.

上海博物館 編, 2000 『草原瑰寶-內蒙古文物考古精品』, 上海書畫出版社.

邵國田 1993 「內蒙古熬漢旗發現的青銅器及有關遺物」 『北方文物』 1期.

楊建華 2009 「中國北方東周時期兩種文化遺存辨析=兼論戎狄與胡的關係」 『考古學報』 2期.

王大方 1996 「宁城打擊盜掘古墓犯罪獲重大成果」, 『中國文物報』 1996年12月15日.

劉國祥 2000 「夏家店上層文化青銅器研究」 『考古學報』 4期.

李逸友 1959 「內蒙古昭烏達盟出土的銅器調查」 『考古』 6기

林澐 1987 「商文化青銅器與北方地區青銅器關係之再研究」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林澐 1991 「對南山根M102出土刻文骨板的一些看法」 『內蒙古東部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海洋出版社.

張懋容 2008 「試論西周青銅器演變的非均衡性問題」 『考古學報』 3期.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 文物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寧城南山根遺址發掘報告」 『考古學報』 75-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東北工作隊 「內蒙古寧城縣南山根102號石槨墓」 『考古』 1  
 項春松, 1984 「小黑石溝發現的青銅器」 『內蒙古文物考古』 3期.  
 項春松, 1984 「“許季姜簋”銘文考」 『北方文物』 第 3期.  
 項春松·李 義, 1995, 「寧城小黑石溝石槨墓調查整理報告」, 『文物』 5.  
 項春松·李義, 1995, 「寧城小黑石溝石槨墓調查整理報告」 『文物』 5.  
 楊建華, 2004, 『春秋戰國時期中國北方文化帶的形成』 北京: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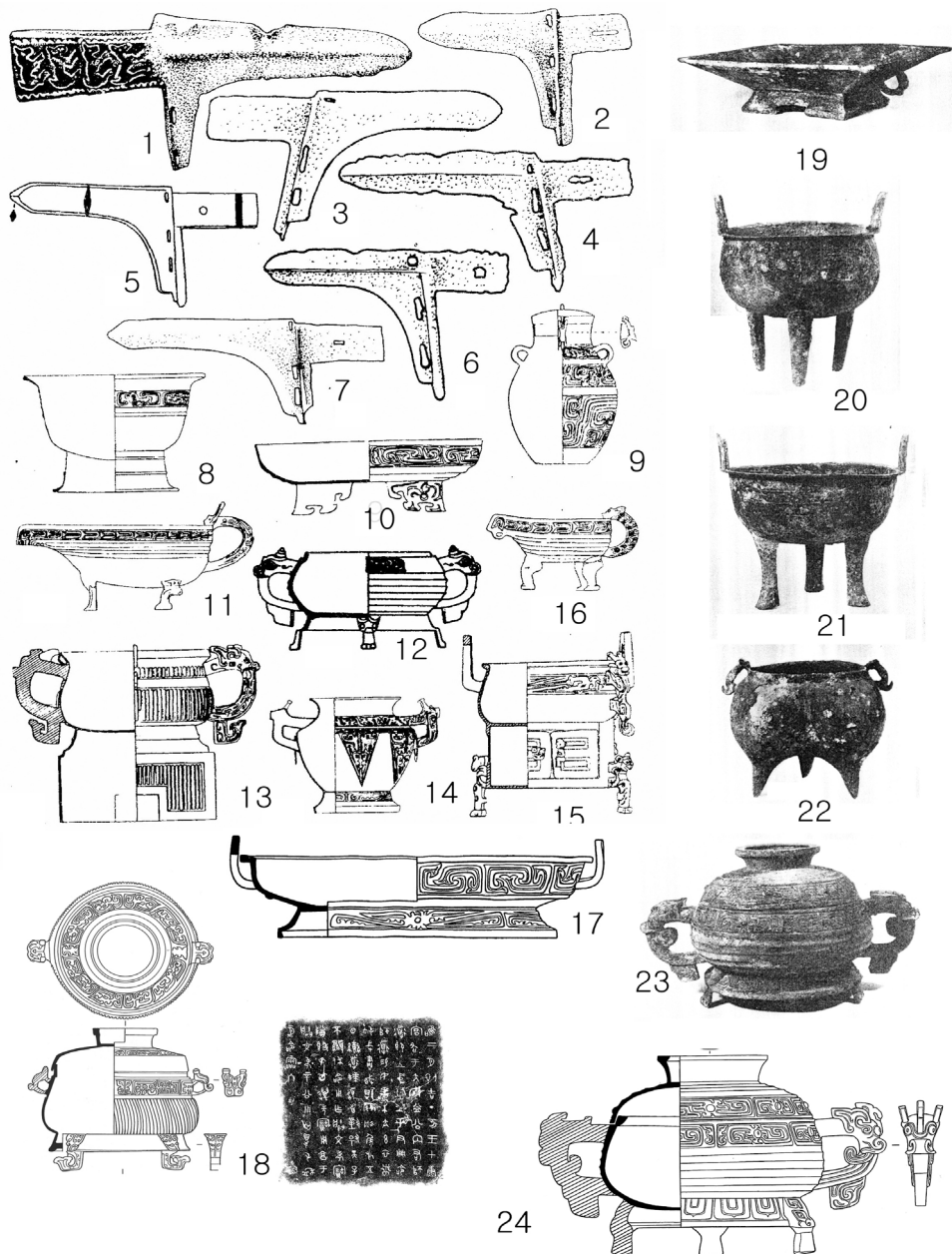
[일본어]

- 甲元眞之. 2004, 「東 アジアの動靜からみた彌生時代の開始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學生社.  
 岡内三眞, 1982, 「朝鮮における銅劍の始源と終焉」, 『考古學論考』 (小林行雄博士 古稀記念論文集).  
 岡内三眞, 2004, 「東北式銅劍の成立と朝鮮半島への傳播」, 『彌生時代の實年代』 (春成秀爾·今村峯雄 編), 學生社.  
 宮本一夫 2004, 「中國大陸からの視點」, 『季刊考古學』 88  
 宮本一夫, 2004, 「青銅器と彌生時代の實年代」, 『彌生時代の實年代』 (春成秀爾·今村峯雄  
 宮本一夫, 2002, 「朝鮮半島における遼寧式銅劍の展開」, 『韓半島考古學論叢』 (西谷正 編).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近藤喬一, 2000, 「東 アジアの銅劍文化と向津具の銅劍」, 『山口縣史 資料編 考古1』.  
 三宅俊彦 2000 『中國古代北方系青銅器文化の研究』, 國學院大學大學院.  
 王建新, 1999, 『東北アジアの青銅器文化』 同成社.  
 有光教一, 1936, 「朝鮮江原道先史時代遺物」, 『考古學雜誌』 28-11號, 日本考古學會.  
 有光教一, 1938, 「朝鮮夫餘新發見石劍·銅劍·銅銚」, 『考古學雜誌』 28-1號, 日本考古學會.  
 柳田康雄, 2004, 「日本·朝鮮半島の中國式銅劍」 『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 29.  
 庄田慎矢, 2004, 「比來洞銅劍の位置と彌生曆年代論(上)」, 『古代』 117.  
 村山恭通, 1997, 「遼寧式(東北系) 銅劍の 生成と 變容」, 『先史學·考古學研究 II 熊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創設25周年記念論文集』.  
 秋山進午, 1995 「遼寧省東部地域青銅器再論」 『東北アジアの考古學研究-日中共同研究報告』.  
 秋山進午, 1968~69 「中國東北地方における初期金屬器文化期の様相」 『考古學雜誌』 53-4, 54-1, 4.  
 春城秀爾 2006, 『考古學はどう檢證したか』, 學生社

[영어 및 러시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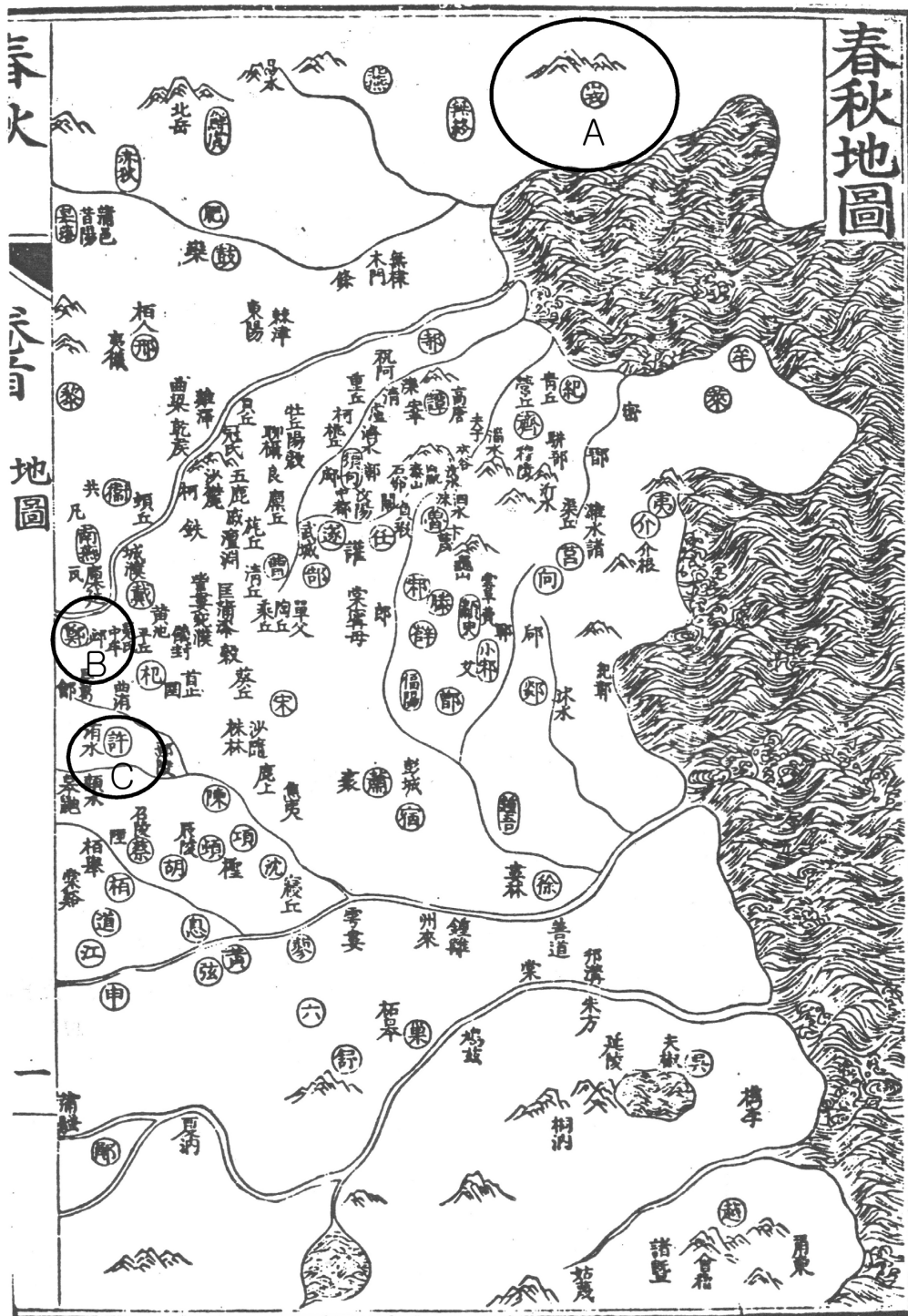
- Ковалев А.А. Древнейшие датированные памятники скифо-сибирского звериного стиля(тип Наньшаньгэнь), //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1998,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도면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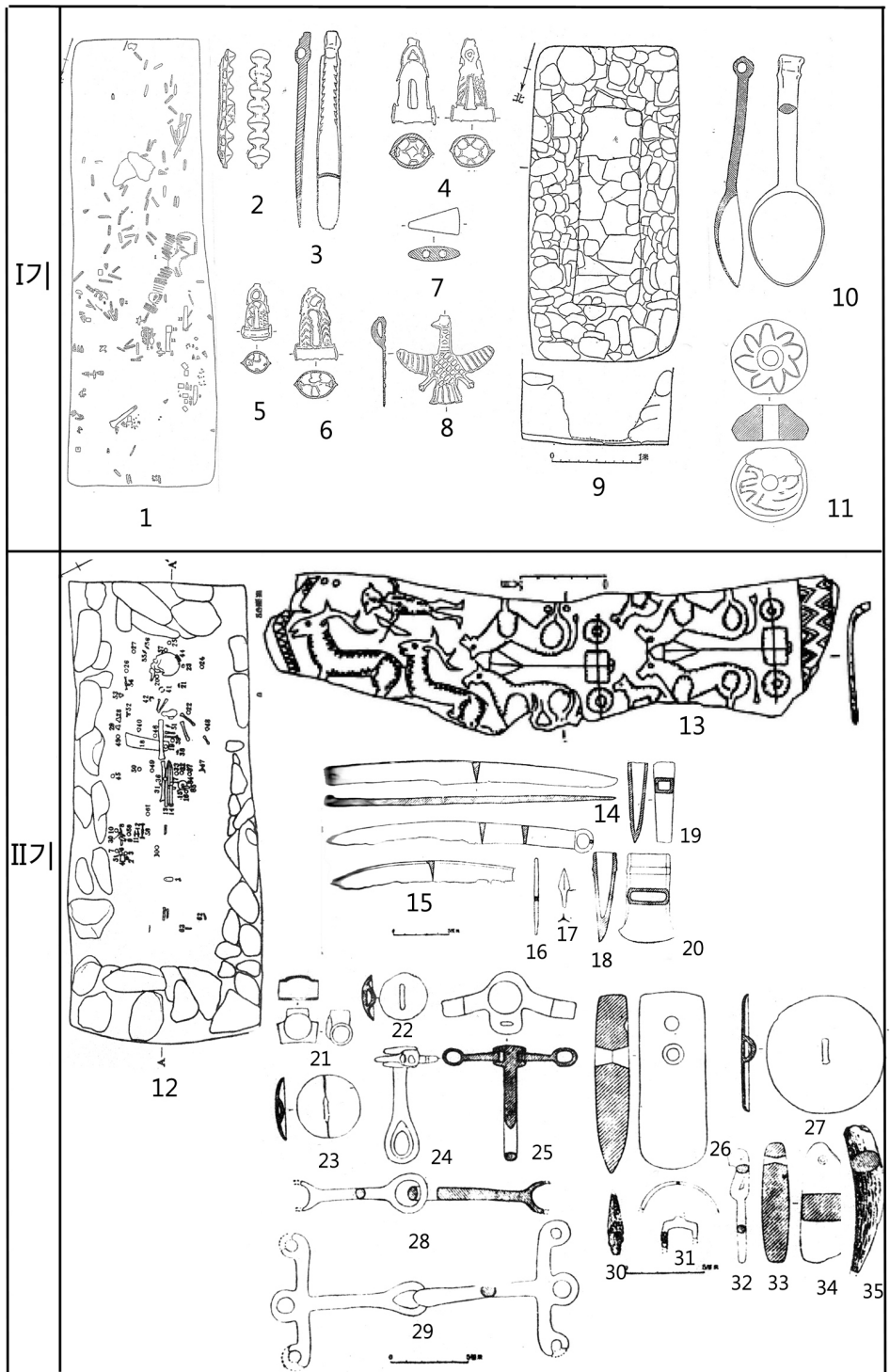


도면 1) 하가점상층문화 출토 중원계통 청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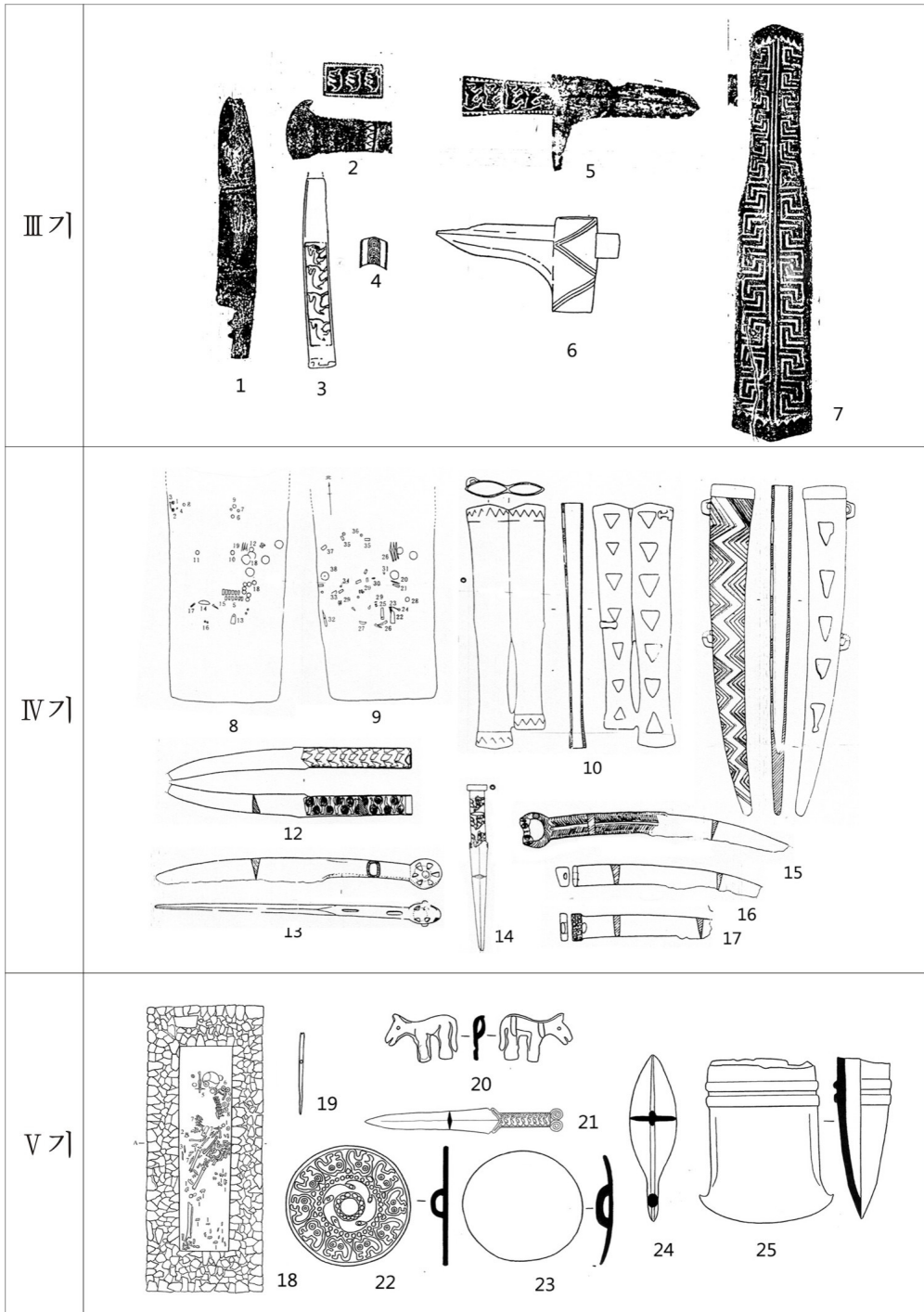
(南山根 58년 수집 - 1,2 ; 와방중 - 5 ; 석차북산취 - 12 ; 小黒石溝 8501 - 8, 9, 10, 11,12,13, 14, 15, 16, ; 小黒石溝 9601- 17,18 ; 南山根 101호 3,4,6, 19~23 ; 동남구 : 7; 小黒石溝 90년 채집 : 24)



도면 2) 춘추시대의 중국 제후국과 변방민족(오른쪽 위가 산융(A), 좌측에서 위가 鄭國(B), 아래가 許國(C)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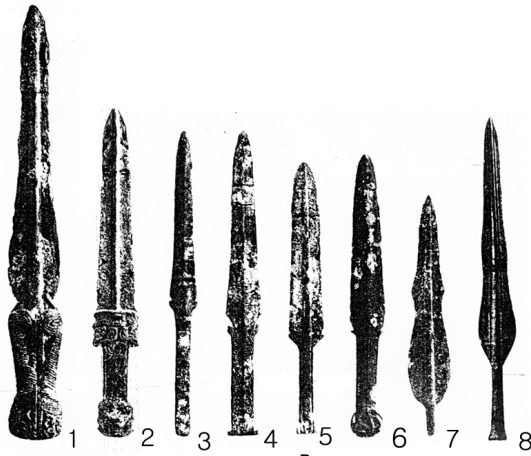


도면 3-1) 하가점상층문화의 분기별 유물상(I,II기)  
 (1~8-南山根 4호묘, 9~11-南山根 3호묘 12~35-南山根 102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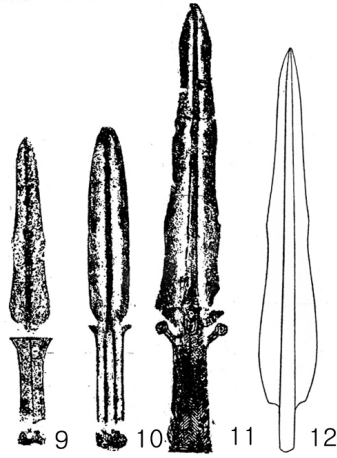


도면 3-2) 하가점상층문화의 분기별 유물상(III기, IV기, V기)  
 1~7- 南山根 58년 수습, 8~17- 小黑石溝 8501호묘, 18~25- 小黑石溝 85년 1구역 3호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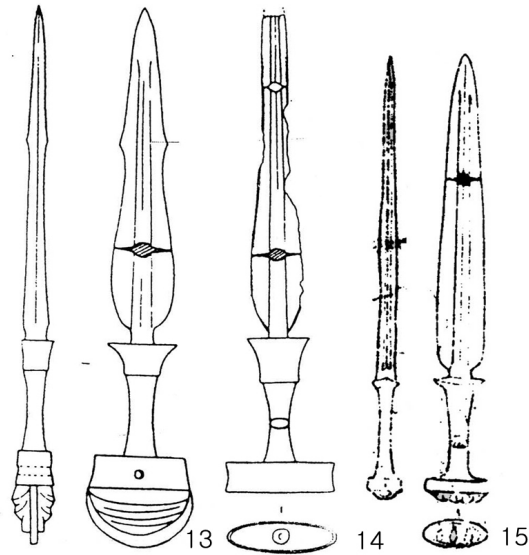
남산근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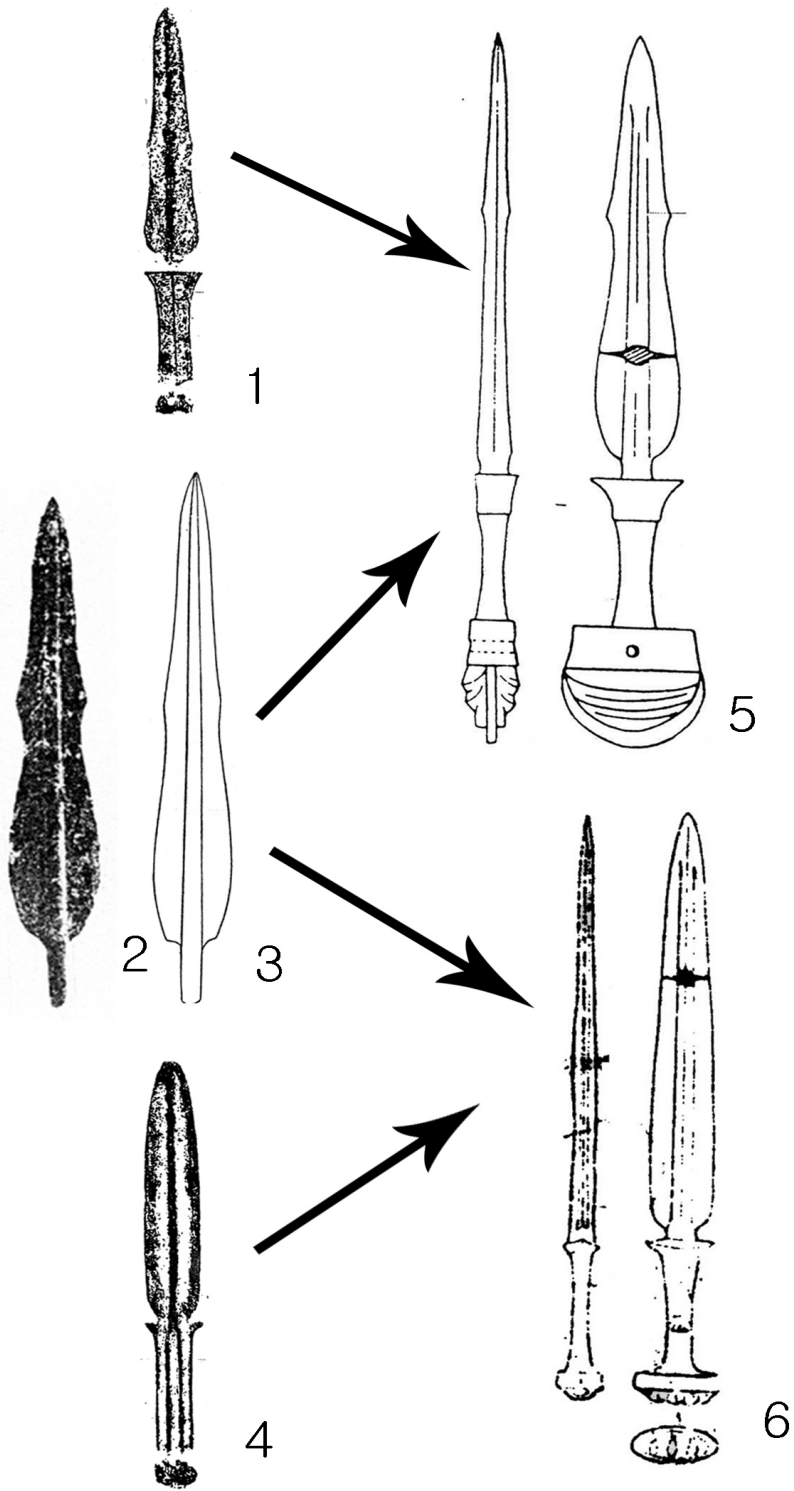
남산근  
58년 수습



소흑석구  
4501호와  
황화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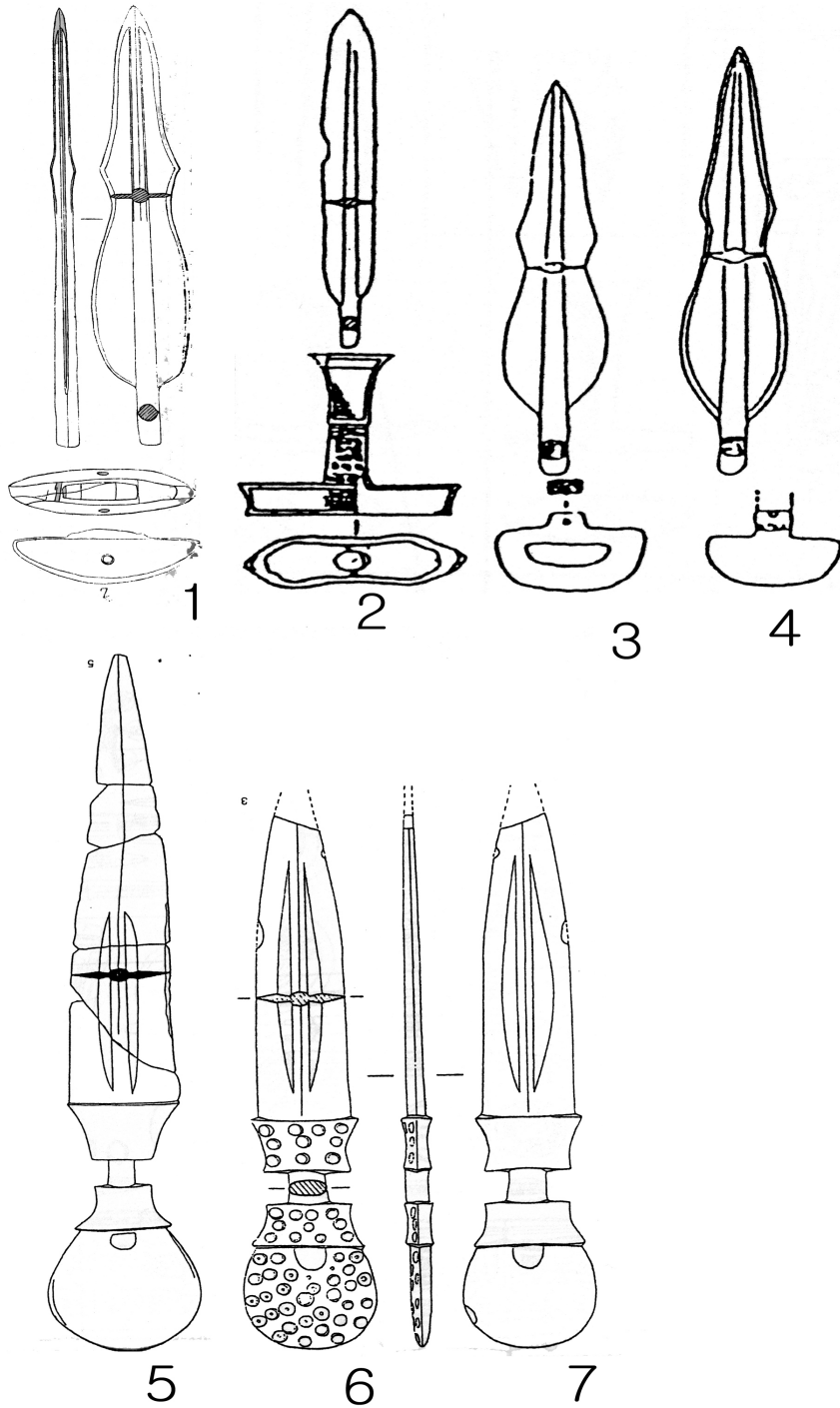


도면 4) 하가점상층문화의 동검



도면 5) 하가점상층문화 동검 변화도

(1,3,4 - 南山根 58년; 2-南山根 101호 ; 5-小黑石溝 8501호; 6-황가전자)



도면 6) 원형의 검과두를 장착한 동검과 석검  
(1-강상, 2~4- 누상, 5~7- 한반도)



도면 7) 몽골의 파지릭문화에서 발견된 철검과 목제검병(몽골고고학연구소 자료)